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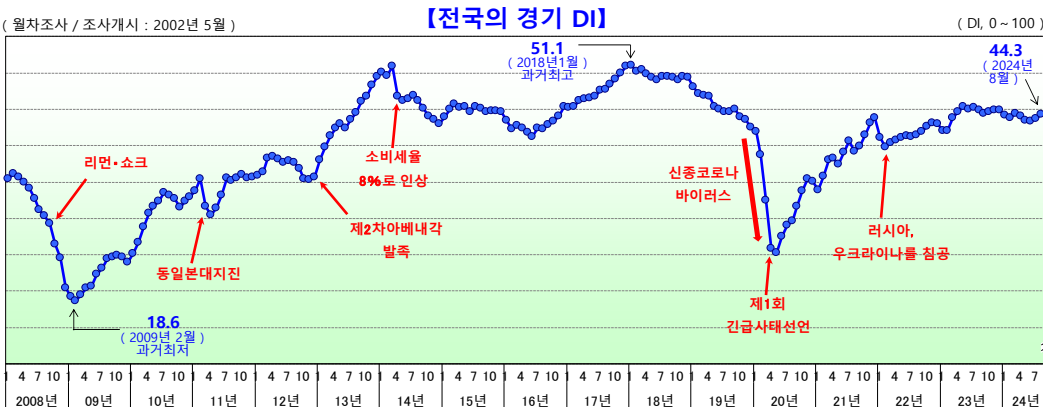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2개월 연속 개선

~ 관광산업과 더불어 반도체 관련 등 제조업이 상승시켜 ~

(조사대상 2만 7,247사, 유효회답 1만 1,414사, 회답률 41.9%,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8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4.3으로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관광산업 및 계절적인 수요가 견인하여 전체 체감경기를 상승시켰다. 향후의 경기는 해외 상황 등 불투명한 요소도 있는 한편 IT관련 투자 등 호재도 많아 내려가지 않고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업계별로는 『제조』 등 10개 업계 중 7개 업계에서 개선되고 악화는 3개 업계였다. 특히 외출 기회 증가 및 무더위, 비축품의 긴급수요 등으로 음식, 식품제조 등 폭넓은 업종으로 호재가 과급하였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 1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중순의 지진발생 및 후반의 태풍 상륙이 있었으나 각지의 관광 관련 및 향토 산업의 상승세가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보합, 「중소기업」과 「소규모기업」은 함께 개선되었다.
-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연휴 시즌의 인파 증가로 인하여 여름축제 등 이벤트 관계를 중심으로 호조인 목소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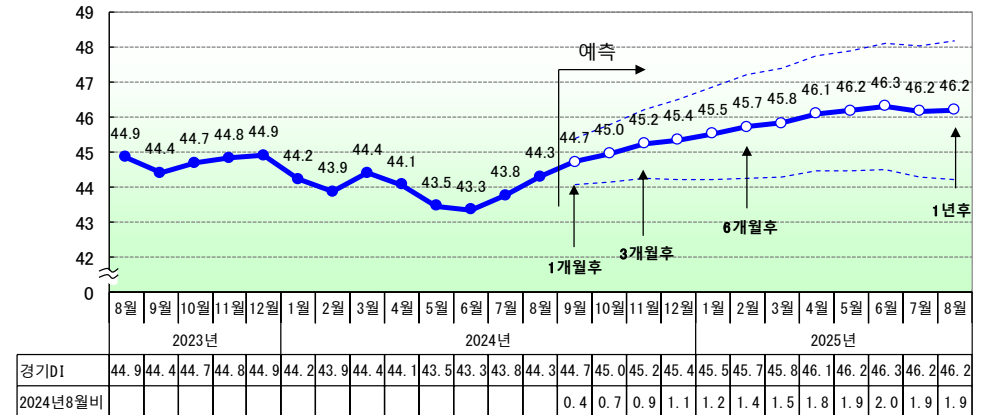
< 2024년 8월의 동향 : 2개월 연속 개선 >

2024년 8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4.3으로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관광산업 및 계절적인 수요가 견인하여 전체 체감경기를 상승시켰다.

8월은 전국적으로 계속된 무더위와 지진 및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경제활동이었다. 호조인 인바운드 수요 및 연휴 시즌의 외출 기회 증가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었다. 또한 음료 및 냉과, 카페 등 음식 관련, 열사병 예방 상품, 냉방시설 공사 등 무더위로 인한 수요확대 외에, 자연재해에 대비한 긴급 수요도 보였다. 호조인 반도체와 관련된 설비투자과 함께 가격 전가 확산도 호조였다. 한편 공장의 가동 정지 및 계속된 인력부족, 코스트 부담 증가 등의 마이너스 요인도 있었다.

< 향후의 전망 : 내려가지 않는 추이 >

향후는 실질임금 상승의 계속성 외에 시장금리 및 외국 환율 동향,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행방 등이 주목된다. 인바운드 소비를 포함하는 관광산업 회복, DX 추진 및 그린에너지 정책 외에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및 로봇기술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생성형 AI 보급 및 반도체 수요 증가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물류 코스트 상승 및 인플레이션 진행, 인력부족, 가계의 절약 정신, 국제적 긴장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의 경기는 해외 상황 등 불투명한 요소도 있는 한편 호재도 많아 내려가지 않고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별:『제조』를 중심으로 7개 업계에서 상향하였으나 태풍 및 지진 등이 하락 요인으로

·『제조』 등 10개 업계 중 7개 업계에서 개선되고 악화는 3개 업계였다. 특히 외출 기회 증가 및 무더위, 비축품의 긴급수요 등으로 음식, 식품제조 등 폭넓은 업종으로 호재가 과급하였다. 한편 태풍 상륙 및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정보 등은 하락 요인이 되었다.

·『제조』(40.7) …전월 대비 0.9포인트 증가.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관광수요 부활, 지역의 구매력 상승」(생과자제조)과 같은 목소리가 들리고, 연휴 시즌 등 인과 증가가 호재가 된 「음식료품·사료제조」(동 0.8포인트 증가)는 5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길어지는 무더위로 인하여 하계 의류 재료를 계속 판매하는 등 고객 니즈의 변화에 맞추어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동 0.4포인트 증가)도 마찬가지로 5개월 만에 상향하였다. 게다가 반도체 관련이 호조인 「화학품제조」(동 1.6포인트 증가)는 3개월 만에 회복하는 등, 『제조』는 12개 업종 중 9개 업종에서 개선되어 5개월 만에 40대가 되었다. 한편 자동차 감산이 악영향이라는 목소리 외에, 태풍 접근으로 인한 각 제조 공장의 가동정지도 영향을 미쳐 「수송용 기계·기구제조」(동 0.7포인트 감소)는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건설』(47.3) …동 0.4포인트 증가.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인바운드 수요로 호텔의 시설 리모델링 의욕이 왕성하다」(전기배선공사)거나 「라피더스 등의 대형안건이 있어 일이 많다」(일반전기공사)라는 등 대규모 설비 투자 안건이 지탱하여 경기를 상승시켰다. 또한 무더위로 인한 냉방 공사 및 재해 대응을 위한 특수, 재생가능에너지 공사 성황 등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한편 공무와 민간 구분 없이 발주량이 느는 가운데 전문가 및 현장감독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신규발주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다수 들려왔다.

·『운수·창고』(45.0) …동 2.4포인트 증가.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소규모기업을 중심으로 폭넓게 회복되었다. 「트럭 부문은 4월보다 대폭 가격상승을 실시하여 증수증익이 계속되고 있다」(집배이용운송)나 「운임 전가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일반화물자동차운송) 등, 서서히 가격 전가가 진행되어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인바운드를 중심으로 수요는 견조하다」(일반전세여객자동차운송)라는 목소리 외에, 여름휴가도 겹쳐져 관광버스는 호조였다. 한편 원유가격의 고공행진 및 인력부족, 중동 정세로 해상운송이 불안정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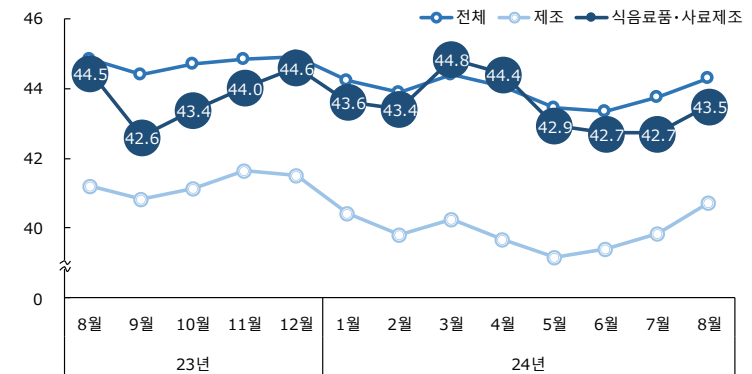
·『농·임·수산』(43.3) …동 2.1포인트 증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식용 돼지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양돈)등 가격상승이 체감경기에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소매현장에서는 일부 지역의 쌀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이나 사입과 동시에 팔리는 등의 목소리도 들렸다. 또한 수박 등을 재배하는 기업에서는 무더위로 인하여 매출이 늘었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한편 사료 및 비료, 에너지 가격의 높은 가격 등은 악재였다.

업계별 경기 DI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농·임·수산	43.0	42.1	43.0	40.1	40.5	40.3	41.2	42.4	42.0	43.7	41.9	41.2	43.3	2.1
금융	48.8	46.8	47.3	48.0	47.0	47.7	47.7	49.2	48.8	48.0	47.6	48.5	48.1	▲ 0.4
건설	47.4	47.1	47.5	47.8	47.2	47.7	47.5	47.0	46.6	46.0	46.4	46.9	47.3	0.4
부동산	49.6	48.5	48.7	47.9	47.5	48.1	48.3	49.3	49.3	47.7	48.0	48.2	47.5	▲ 0.7
제조	41.2	40.8	41.1	41.6	41.5	40.4	39.8	40.2	39.7	39.2	39.4	39.8	40.7	0.9
도매	42.3	41.9	41.7	42.1	42.7	41.6	40.9	41.4	41.0	40.5	40.1	40.7	41.3	0.6
소매	41.8	41.4	41.9	41.2	41.5	40.8	40.6	41.4	41.7	40.7	40.3	40.3	40.5	0.2
운수·창고	43.3	42.8	44.1	43.8	44.5	43.5	41.9	43.1	43.1	43.3	43.4	42.6	45.0	2.4
서비스	50.8	50.4	50.8	50.8	50.9	50.2	50.4	51.0	50.9	49.7	49.2	50.0	49.8	▲ 0.2
기타	40.8	39.2	40.1	38.2	42.8	41.3	41.2	41.1	42.1	37.8	37.5	40.1	41.3	1.2
격차	9.6	9.6	9.7	10.7	10.4	9.9	10.6	10.8	11.2	10.5	9.8	10.2	9.3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포함,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주목산업의 경기 DI 추이



주요 업종별 경기 DI 랭킹

상위 10 업종	업종명	경기DI	하위 10 업종	업종명	경기DI
	정보서비스	53.9		출판·인쇄	34.4
료칸·호텔	53.4	철강·비철·광업제품도매	34.7		
음식점	52.5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6.5		
전문서비스	50.6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6.5		
리스·임대	50.2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	36.7		
인재파견·소개	49.2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7.2		
메인テナンス·경비·검사	48.2	지류·문구·서적도매	37.2		
금융	48.1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도매	38.2		
교육서비스	47.7	자동차·동부품소매	39.0		
부동산	47.5	철강·비철·광업	39.0		

규모별 : 「중소기업」이 전인, 제조업 및 건설업이 상승시켜

- 「대기업」은 포함이던 한편 「중소기업」과 「소규모기업」은 모두 개선되었다. 「대기업」에서 설비투자 의욕에 회복 경향이 보이는 한편 「중소기업」은 중·소형 안건의 수주가 활발했다. 「소규모기업」에서는 물류업에서 운임개정의 진전이 보였다.
- 「대기업」(48.2) …전월 대비 포함. 설비가동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하여 설비투자 의욕도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투자관련이 개선경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금리가 오를 기미로 인하여 신축 주택 구매 보류의 움직임도 보였다.
- 「중소기업」(43.6) …동 0.7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중·소형 설비투자 및 건설 안건의 수주기회 증가로 『제조』가 개선되었다. 또한 음식점이 크게 상향한 것도 있어 식재의 공급원인 『농·임·수산』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 「소규모기업」(42.5) …동 0.7포인트 증가.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단체여행의 회복기조 및 운임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운수·창고』가 크게 개선되어 「대기업」「중소기업」을 상회하는 수준이 계속되었다. 또한 여름 이벤트 개최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 경기 DI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대기업	48.0	47.8	47.9	48.4	48.1	47.9	47.7	48.0	47.9	47.9	48.0	48.2	48.2	0.0
중소기업	44.3	43.8	44.1	44.2	44.3	43.6	43.2	43.8	43.4	42.6	42.5	42.9	43.6	0.7
(그중 소규모기업)	43.5	43.0	43.4	43.1	43.3	42.6	42.4	42.9	42.3	41.2	41.6	41.8	42.5	0.7
격차(대기업 - 중소기업)	3.7	4.0	3.8	4.2	3.8	4.3	4.5	4.2	4.5	5.3	5.5	5.3	4.6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포함,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경기 DI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44.8	43.6	43.7	43.3	43.3	41.6	41.8	42.4	42.8	42.4	42.8	44.1	45.0	0.9
도호쿠	41.8	41.5	41.4	41.3	40.3	40.2	38.8	39.3	39.2	38.6	39.2	39.1	39.7	0.6
키타칸토	43.1	42.9	43.0	42.6	43.0	40.9	41.7	42.0	41.4	40.9	40.7	41.2	42.1	0.9
미나미칸토	46.6	46.4	46.3	46.7	46.6	46.5	46.6	47.2	46.6	45.8	45.6	46.1	46.6	0.5
호쿠리쿠	43.1	42.5	42.1	42.3	42.5	40.0	39.8	41.4	42.4	42.3	40.7	41.4	41.8	0.4
토카이	44.4	43.6	44.4	45.1	44.8	44.4	43.1	43.7	43.2	43.0	43.3	43.9	43.7	▲0.2
킨키	43.6	43.2	43.7	44.1	44.6	43.6	43.2	43.6	43.7	42.6	42.5	42.9	43.5	0.6
츄고쿠	44.3	44.1	44.9	44.2	43.9	44.3	43.2	43.1	42.6	42.8	42.6	43.6	43.9	0.3
시코쿠	41.8	41.2	41.4	41.3	42.5	42.2	41.0	41.1	41.2	40.2	39.9	39.4	40.5	1.1
큐슈	48.3	47.7	48.6	48.7	49.0	48.3	48.1	48.5	47.6	46.4	46.5	46.2	47.3	1.1
격차	6.5	6.5	7.2	7.4	8.7	8.3	9.3	9.2	8.4	7.8	7.3	7.1	7.6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포함,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개선, 관광관련이 플러스 요인이나 악천후가 하락시켜

- 「키타칸토」「큐슈」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 「토카이」가 악화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는 35개 도부현(道府県)이 개선, 11개 부현(府県)이 악화되었다. 중순의 지진발생 및 후반의 태풍 상륙이 있었으나 각지의 관광 관련 및 향토 산업의 상승세가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 「키타칸토」(42.1) …전월 대비 0.9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지역 내 5개 현(県) 중 4개 현이 상향하였다. 인바운드 소비 및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관광소비가 호조였던 한편 무더위 관련 수요도 체감경기를 상승시켰다. 또한 활발한 리폼 수요도 중소기업의 개선 요인이 되었다.
- 「큐슈」(47.3) …동 1.1포인트 증가.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지역 내 8개 현(県) 중 5개 현이 개선, 3개 현이 악화되었다. 운임 인상 및 인바운드 소비로 『운수·창고』가 호조였던 한편 『건설』은 도시개발 및 공장 건축, 설비투자가 상승하였다.
- 「토카이」(43.7) …동 0.2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지역 내 4개 현(県) 중 「아이치(愛知)」 「미에(三重)」 2개 현이 하락하였다. 맨션 건설 및 관광 관련은 상승세 요인이었으나 자동차 감산과 더불어 지진 및 태풍의 영향으로 「여름 성수기에 대타격」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기 DI (2024년 8월)

